



[기업달래기 릴레이] 현대차그룹 간담회
“혁신성장” 당부
鄭 “23조 투자” 화답
03



Economy

코스피	2515.43 (-6.31)	코스닥	886.58 (-14.65)
금리 (국고채 3년)	2.23 (변동없음)	환율 (원/달러)	1069.30 (+6.60) (17일)

반토막 난 ‘21세기 툴립’… 대폭락의 전조 VS 곧 재반등

대내외 규제에 악재 작용
대표적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 1151만원까지 폭락
알트코인도 일제히 떨어져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 /연합뉴스

가상화폐(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비상 등이 커졌다.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지만 과거 조정기에 하락폭이 75%까지 확대됐음을 감안하면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21세기 ‘화폐’인지, ‘툴립’인지.

17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7시 29분 1151만원까지 떨어졌다. 비트코인 열풍이 불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1일 1127만

5000원에 거래된 이후 한 달 반 만에 최저치다.

지난 6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2661만6000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리플’이나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가격도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

졌다.

해외 송금에서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4500원 선까지 올랐던 리플은 이날 7시 30분 1200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이달 들어 200만원을 돌파했던 이더리움 역시 109만원까지 떨어

지기도 했다. 악재는 안팎에서 모두 불거졌다.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며 규제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정부 부처별로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목소리들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한 몫을 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경고발언도 여전히 이어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범정부 부처가 나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관련한 의무 준수 여부와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

를 조사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권한은 없지만,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해 개인간(P2P) 장외거래까지 차단하겠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하락세가 이어질 지다. 과거 사례를 보면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지난 2014년 4월 365.2달러였던 비트코인은 석달간 80% 가량 오르며 667.6달러를 기록했지만 그 뒤로 장장 8개월 동안 폭락을 거듭하며 178.1달러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13~2014년 대조정기에서부터 지금의 상승장까지 적게는 -30% 많게는 -75% 가량의 깊은 하락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만일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화폐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조정없는 상승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다시 2014년과 같은 하락장이 온다면 그 파급효과는 당시와 비교할 수 없다. 2014년만 해도 국내에서 참여자가 많지 않은 ‘그들만의 리그’였다면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거래 규모가 가장 많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한 곳만도 회원이 120만명이며, 하루 최대 거래액이 10조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송 연구원은 “가상화폐는 기본적으로 ‘0’ 또는 ‘1’이 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자산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0’이 되어도 할 수 없는 자산”이라며 “성장개연성이 있는 가상화폐라 하더라도 급격한 조정이 발생할 개연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우리은행 채용비리’ 혐의 이광구 前행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판사)는 17일 일부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전 은행장과 전 임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19일 열린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 30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도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2016년 채용뿐 아니라 2015~2017년 입사 과정에서도 불공정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 전 행장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병준 기자 joker@



충북 진천 선수촌 찾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23일 앞둔 17일 충북 진천 선수촌을 방문해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훈련을 참관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과 선수촌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홍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이재근 진천 선수촌장으로부터 선수촌 현황과 올림픽 목표 성적을 보고받았다. 이후엔 우리나라의 ‘메달밭’으로 평가받는 쇼트트랙 종목 선수단의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김선태 쇼트트랙 대표팀 총감독을 비롯해 선수들과 올림픽 준비 상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스하키 훈련장에서 남아 아이스하키 대표팀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車보험 손해율 개선에 손보사, 보험료 인하 고심

8개사 평균 4.7%p 개선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하 압박과 맞물려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손보사 8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2.6%로 전년 말 87.3% 대비 4.7%포인트 개선됐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업계

에선 적정 손해율을 77~78%로 본다.

메리츠화재가 78.2%로 가장 낮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기록했다. 이어 현대해상 79.6%, 삼성화재 80.3%, DB손보 80.6%, KB손보 80.7%, 약사손보 85.3%, 롯데손보 86.9%, MG손보 89.0%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8개사 모두 손해율이 개선됐다. 특히 롯데손보는 같은 기간 100.8%에서 86.9%로 무려 1년 새 손해율이 13.9%포인트 개선됐다. 이에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24일 무려 5년 만에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5% 인하했다.

(2면에 계속)

/이봉준 기자 bj35sea@

‘반도체 초호황’ SK하이닉스, 13조 시대 연다

(연간 영업이익)

지난해 4분기 4.3조 추정 사상최대 분기 실적 전망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수퍼호황 바람을 타고 지난해 4·4분기에 4조30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분기에 도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은 1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0조원을 넘긴 상장사로는 삼성전자와 한국전력에 이어 세 번째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하

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컨센서스(추정치)는 매출액 8조9334억원, 영업이익 4조3548억원이다.

지난해 4분기 원화 강세로 이익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폭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 전망이다. 지난해 4분기에 원·달러 평균환율은 26원 하락했다.

지난해 1~3분기까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9조2555억원이다. 4분기 실적이 전망치대로 나올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은 13조6103억원이 된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기별 영업이익 4조원 이

상도 지난해 4분기가 처음이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초호황기 덕을 톡톡히 봤다. 스마트폰 고사양화에 따른 D램, 플래시메모리 수요에 구글, 아마존, IBM 등 IT(정보기술)기업의 대형 데이터센터 건립,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업체의 메모리 수요 증가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해 D램 평균가격(4Gb DDR4 PC용 제품 기준)은 1.94달러(USD)에서 3.59달러(USD)로 85.1% 급등했다.

또 데이터센터에 쓰이는 서버용 D램 중 16GB DDR4 제품의

평균가격은 2016년 말 95달러에서 지난해 말 145달러까지 약 52.6% 올랐다.

박유익 키움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원·달러 환율 하락을 고려해도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여전히 양호한 메모리반도체 업황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원화 강세 지속으로 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지만, D램 및 낸드 가격 상승폭이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환율 영향을 상쇄했다”며 “4분기 D램 가격은 7%, 낸드 가격은 1%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